

수협 탐방

<4> 신안군수협

도서벽지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동수협

면세유 배달·수산물 위탁판매...낙도 어민들 불편 해소 퇴출 위기 극복 최근 3년 조합원 배당 등 눈부신 성과

천사의 섬 신안, 이곳엔 어업인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이 있다. 불량조합에서 경영평가 1등급 조합으로 3년연속 선정되기까지 3500여명의 조합원을 비롯해 30여명의 임·직원이 뚝뚝뚝치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자부심 또한 더욱 각별했다.

1965년 창립한 신안군수협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합원이 4000명이 넘는 우량조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95억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 퇴출 위기에 몰렸으나 경영지원자금 200억원을 받은 후 직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폈다. 조합원들도 대출금 상환에 앞장서고 조합 측이 위관 대금을 늦게 지급해도 한마디 불평도 없었었다.

뺨을 꾸는 노력은 2011년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합 창립 47년만에 조합원에게 출자배당과 사업어용고 배당을 하는 꿈같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4억53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3억9500만원, 지난해에는 3억 6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었다.

위탁판매도 늘어난 성과를 냈다. 2002년 248억9300만원에 불과했던 위탁판매액이 급성장해 2011년부터 3년연속 1000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판매참여와 압해 지역을 포함한 암대·자은·안좌·팔금 지역의 물김판매 증가와 갯새우, 오징어 판매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2010년에는 부실조합인 흑산도수협을 흡수 합병한 것도 위관액(흑산도 홍어) 증가에 한몫했다.

이러한 노력은 3년 연속 1등급 조합에 선정되고, 주영문 조합장은 경영정상화와 당기순이익 42억, 수산물위탁판매 1000억 달성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아 등



주영문 조합장

탐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했기에 복지수협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안군수협의 노력은 현재도 활기차다.

지난 3월에는 신안군수협 송도 위관장 내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을 신축,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냉동·냉장·제빙시설을 갖춘 수산물저장 처리시설은 연면적 1310㎡(3%평)의 지상 4층 규모로 총30억원이 투입돼 건립했으며 활선어위관장은 연면적 984㎡(29%평)에 총 12억5000만원을 드려 신축했다.

주영문 조합장 취임 이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수협 운영도 계속되고 있다. 신안군수협의 업무지역이 전국에서 낙도벽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 생필품 구입부터 어업용 기자재 구입까지 불편을 겪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낙도벽지 어촌계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동수협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면세유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량의 수산물도 현지출장 위탁판매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전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여성어업인육성과 복지정책 육성이라는 수협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어촌사랑주부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늘리고 목포한국병원과 협약을 통해 어업인 의료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수협은 어촌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선원과 소급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선원 신청안내, 사증



신안군수협은 갯새우 위관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사진은 송도 위관장 위관 모습. (신안군수협 제공)

신청, 출입국 기한 연장 등의 업무를 대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주영문 조합장은 “3년 연속으로 수산물위탁판매 1000억 달성과 더불어 경영평가 1등급이 된것은 조합원과 직원들

이 힘을 합쳐 이룩한 성과”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조합원과 소통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합원이 있는 어디든지 찾아가 현장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축산정보 교류를 위한 축산기자재전이 안성팜랜드에서 개막했다.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4개 업체가 15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축사설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순환 기자재, 배합사료 등을 소개한다.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 64개 업체 참가 축산기자재전

안성팜랜드서 13일까지

농협중앙회는 오는 13일까지 축산정보 교류를 위한 축산기자재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안성팜랜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4개 업체가 15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축사설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순환 기자재, 배합사료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농협은 농가컨설팅을 하고 가족개량·배합사료·가축방역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

관을 운영하는 한편 목우촌 시식행사, 축산물 협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축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계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11일 도시 지역 초등학생들이 직접 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꽃사랑 농업사랑 체험교육’에 쓰일 화분 전달식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관련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시장진출을 돕기 위한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기술분야는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합기술 등 6개 대분류 기술과 18개 중분류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7월8일

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신기술 인증 신청과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3차에 걸친 심사와 평가, 예정기술 공고 및 의견조치를 거쳐 오는 11월 신기술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농림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평가원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돼지 유행설사병 가을부터 재확산 우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돼지 유행설사사병(PED)이 이번 여름 소강기를 거쳐 올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돼지 유행설사사병은 국내에서 2013년 11월 발생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경북·경기·충북·충남·전남·전북·제주 등 84개 양돈농장에서 2만3559마리의 돼지가 감염증상을 보였다.

돼지 유행설사사병은 생후 1주일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폐사율이 매우 높고 재발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발병하면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인다. 현재 유럽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돼지 유행설사사병이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은 2013년 4월 돼지 유행설사사병이 발생한 이후 지난 5월15일 현재 아이오와 등 29개 주에서 6617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돼지 유행설사사병이 대규모로 유행, 100만 두 이상의 새끼돼지가 폐사했다. /연합뉴스

전량 중국산 수입 의존

해삼 배합사료 국산화 성공

수산과학원 “수입산보다 46% 성장 촉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해삼 배합사료가 국산화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해삼 육성용 배합사료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김경덕 박사는 “그동안 경험·기술 부족 등으로 국내에서는 해삼용 배합사료를 생산하지 못해 값비싼 중국산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산화 성공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해삼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산과학원은 국산 사료가 중국산보다 46% 이상의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삼 국내 생산량은 2006년 2936t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1935t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즉시입주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전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 010-4451-6686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